BRICs(브릭스)? 이제는 CIVETS(시베츠) 국가를 주목하라!

지난 2001년 골드만삭스는 선진국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국가로 BRICs를 제시했다. BRICs란 Brazil, Russia, India, China와 같은 신흥개발도상국을 뜻한다. 이후, 유망시장을 의미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HSBC은행이 작년에 제시한 CIVETS(시베츠) 국가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CIVETS 국가는 Columbia(콜롬비아), Indonesia(인도네시아), Vietnam(베트남), Ezypt(이집트), Turkey(터키), South africa(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개국을 뜻한다. 아직은 BRICs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규모는 작지만 풍부한 젊은 인구,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BRICs 이후로 유망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럼 각 나라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정부의 강력한 치안확보 정책에 힘입어 과거 10년 동안 납치건수는 90%가 감소하고, 강도사건은 46%가 감소하는 등 치안 상황이 매우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치안상황 개선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에 비해서 무려 2배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니켈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자원생산량을 살펴보면 원유(68만 배럴, 중남미 4위), 천연가스(105억m^3, 중남미 7위), 석탄(7200만t, 중남미 1위, 세계 10위), 니켈(9만 4000t, 중남미 1위, 세계 6위)에 달한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명에 달하는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 위주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제부진에도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2009년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4.5%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올해도 6%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가장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의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만연된 부패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 베트남

베트남 경제는 과거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올해도 6%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201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은 WTO에 가입한지 4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불투명하고 투자절차가 복잡한 것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이집트

2010년 5.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이집트 경제는 최근 정정불안으로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지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만간 이집트가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아 예전과 같은 성장궤도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는 25세 정도의 젊은 인구가 8,200만명에 달하는데,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이들의 구매력이 높아질 경우, 내수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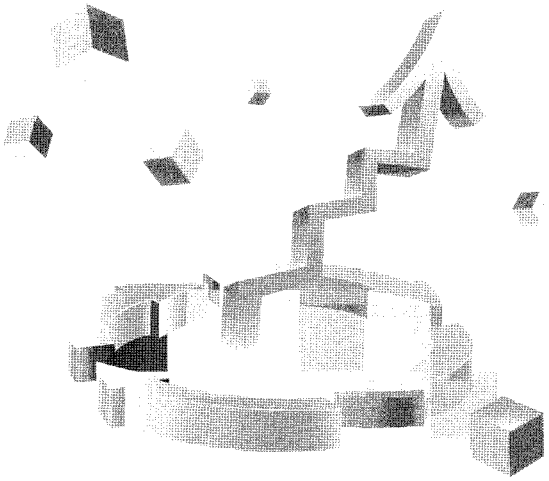
◤ 터키

올해 터키경제는 6.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3년에도 5% 이상의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유로존 또는 EU 가입 없이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을 꾸준히 증대시켜 나가고 있고,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중심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금, 플래티넘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원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다시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

2010년 월드컵을 통해서 노후화됐던 사회 인프라가 대폭 개선 되었으며,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로 국가 신인도도 제고하였다. 무엇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경제력의 37%를 점유한 경제대국이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 사회 인프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풍부한 젊은 인구,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BRICs 이후로 유망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포스트 브릭스 국가로 각광받고 있는 CIVETS(시베츠) 국가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평균연령 27세의 풍부한 젊은 인구를 대거 보유하고 있고, 젊은 계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연 6% 이상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적하고 있다.

BRICs 국가들이 해외 수요에 바탕을 둔 국가 주도의 수출 위주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반해 CIVETS(시베츠) 국가는 해외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시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젊은 인구 외에는 BRICs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높지 않고, 외화 유동성과 정부 재정이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높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